

김해정책 BRIEF

김해정책 BRIEF

2025 - 5호
2025. 11.

김해시의 경유형 방문지에서 체류형 관광목적지로의 전환 모색

최나리

문화관광복지연구부 선임연구위원

권장욱

동서대학교 관광경영·컨벤션학과 교수

GIMHAE



I. 배경 및 분석개요

II. 관광목적지로서 김해시의
현황 진단

III. 경유형 도시에서 체류형
목적지로의 전환

IV. 맺음말

I. 배경 및 분석개요

1. 배경 및 목적

- 김해시는 경상남도 내에서 외지인의 방문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숙박 비중·관광 소비·전국적 인지도 등 핵심 관광지표에서 인근의 대표 체류형 관광도시(통영·진주·울산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격차는 김해시가 관광목적지로 확실히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경유·쇼핑 중심의 통과형 도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줌
- 이에 본 연구는 가야문화 자원과 김해국제공항 등 김해시만의 경쟁 우위를 재조명하고, 일본 이바라키현, 함안 낙화놀이 등 체류형 전환에 성공한 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김해시가 체류와 소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목적지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분석개요

- **시간적 범위** | 2024년 1월 ~ 2025년 11월 (데이터 기준)
- **공간적 범위** | 김해시 및 인근도시(통영시, 진주시, 양산시, 울산광역시)
- **분석 데이터**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민여행조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데이터랩』 (방문자 수, 숙박·소비 비중, 인프라 현황, 외국인 방문 현황 등)

II. 관광목적지로서 김해시의 현황 진단

1. 관광목적지(Tourist Destination) 인식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

- 현재 국내에서는 기초지자체 단위의 ‘관광 목적 방문자 수’를 직접적으로 집계하는 공식 통계가 없어, 관광수요를 정밀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국민여행조사』는 광역 단위 자료만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관광데이터랩의 기초지자체 방문자 수 역시 체류 기반의 추정치로, 해당 방문이 실제 관광 목적이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제약이 있음
- 이러한 통계 여건을 고려할 때, 김해시의 관광수요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광역 통계를 활용해 기초 자자체 차원으로 재보정하는 방식이 불가피함
- 국민여행조사 기준 2024년 경상남도 방문자 수(2,579만 명)에 지역별 점유율(한국관광데이터랩)을 적용하면, 김해의 관광 목적 방문자는 약 315만 명으로 추정됨
- 이 수치는 광역시인 울산(407만 명)에 근접한 규모로, 단순 방문 규모만 보면 김해가 경남의 주요 관광 거점처럼 보일 수 있음. 그러나 방문자 수만으로는 도시가 실질적인 관광목적지인지 여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함
- 관광목적지는 단순 방문이 아니라 ‘체류’와 ‘소비’가 일어나는 도시를 의미함. 목적지로 인식된 도시는 숙박을 전제로 한 장기 체류, 야간활동, 지역 상권 이용 등이 뒤따르지만, 경유·쇼핑 중심의 방문은 도시 경험과 인지 확대로 이어지지 않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광목적지의 핵심 속성을 ‘숙박을 수반한 체류형 방문’으로 정의하고, 이 기준에서 김해시의 현황을 재진단하고자 함
-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김해시는 목적지형 관광의 핵심 지표에서 공통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임
 - 방문자 숙박 비중은 8.0%로 양산(7.9%)과 유사하며 통영(20.3%), 진주(12.8%), 울산(16.3%)대비 크게 낮음
 - 총지출액 중 숙박비 비중도 0.8%에 그쳐, 체류와 소비가 지역 내에서 충분히 발생하지 않음을 보여줌
 - 전국 인지도를 반영하는 수도권 방문자 비중은 7.0%로, 울산(16.7%), 통영(14.3%), 진주(12.4%) 대비 현저히 낮음
- 종합하면 김해시는 공항·철도 등 우수한 접근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외지 방문객을 오래 머물게 만들 핵심 매력요소와 인프라가 부족해, 도시 전체가 관광목적지로 인식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표1> 김해시 주변 도시의 지자체별 관광 관련 지표 비교
(2024년 12월 현재)

구분	김해	통영	진주	양산	울산
방문자 수 (명)	3,146,746	1,109,099	1,599,166	2,501,921	4,066,000
숙박 비중 (방문자)	8.0%	20.3%	12.8%	7.9%	16.3%
숙박 비중 (소비금액)	0.8%	6.0%	7.4%	1.2%	1.7%
수도권 비중 (방문자)	7.0%	14.3%	12.4%	6.7%	16.7%

자료: 한국관광데이터랩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이러한 현상은 결국 숙박 인프라의 구조적 부족과 밀접하게 연결됨. 김해시의 관광호텔 객실 수는 323실로, 통영(323실)과 비슷하나, 울산(2,846실)의 약 12% 수준에 불과함
- 즉, 도시 내 체류 기반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관광객이 김해를 ‘머무는 도시’가 아니라 ‘지나치는 도시’로 인식하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요약하면, 김해시는 방문 규모는 크지만 체류·소비·인지도 측면에서 관광목적지로서의 핵심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김해 관광이 경유·쇼핑 중심의 이용 패턴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표2> 김해시 주변 도시의 지자체별 숙박시설 비교
(2025년 9월 현재)

구분	김해	통영	진주	양산	울산
관광호텔 (개소)	4	5	2	2	21
관광호텔 객실 수 (개)	334	323	126	124	2,846
전체 객실 수 (개)	7,166	5,248	5,181	4,266	17,121
방문자 1,000명 당 전체 객실 수 (개)	2.1	4.7	3.2	1.7	4.2

자료: 한국관광데이터랩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II. 관광목적지로서 김해시의 현황 진단

2. 관광콘텐츠 소비의 구조적 불균형

- 김해시는 가야문화권의 중심지라는 강력한 역사문화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 방문 패턴은 문화체험보다는 쇼핑 중심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남
- 한국관광데이터랩에서 제시하는 김해시의 주요 방문지 상위 5개소를 보면, 상위 5곳 중 역사 관광지로 분류되는 곳은 국립김해박물관 단 한 곳에 불과하며, 상위권 방문지는 대형 쇼핑시설이 압도적으로 점유하고 있음

<표3> 김해시의 중심 방문지 (2025년 10월 현재)

번호	방문지	유형
1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쇼핑
2	신세계백화점/김해점	쇼핑
3	연지공원	문화관광
4	롯데호텔앤리조트	숙박
5	국립김해박물관	문화관광(역사)

자료: 한국관광데이터랩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3.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체류 환경의 제약 요인

- 관광목적지 여부를 판단하는 또 하나의 핵심 지표는 외국인 관광객 방문 및 숙박 비중임. 그러나 김해시의 외국인 관광객 규모와 숙박 비중은 인근 도시 대비 매우 낮은 수준임
 - 외국인 방문자 수: 김해시 889,836명으로, 통영(1,526,167명)의 약 절반 수준
 - 외국인 숙박소비 비중: 김해 10.1%, 통영(13.8%), 진주(23.0%), 울산(35.2%) 등과 비교하면 미흡한 수준임
- 외국인 관광객은 김해시를 거의 숙박지로 활용하지 않으며, 이는 김해시의 관광 목적 매력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함

<표4> 김해시 주변 도시의 지자체별 외국인 방문현황 비교 (2025년 11월 현재)

구분	김해	통영	진주	양산	울산
외국인 방문자 수 (명)	889,836	1,526,167	232,637	418,003	3,267,429
외국인 숙박소비 (비중)	10.1%	13.8%	23.0%	13.8%	35.2%

자료: 한국관광데이터랩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다만, 긍정적 신호도 존재함. 한국방문 외국인의 경남 방문 희망지 조사에서 김해가야테마파크가 경남 1순위 희망 방문지로 나타난 바 있음. 이는 김해시가 외국인에게 낮은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가야라는 고유 자산의 잠재력은 분명히 존재함을 시사함
- 즉, 김해시는 현재 외국인 체류·소비형 방문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도시이지만, 가야문화의 현대적 재해석과 공항 접근성을 결합할 경우 성장 가능성은 충분한 도시로 볼 수 있음

III. 경우형 도시에서 체류형 목적지로의 전환

- 김해시가 '경유형 도시'에서 '체류형 관광목적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방문자 규모 확대가 아니라, 도시 이미지를 재정의하고, 머무를 이유를 설계하며, 지속 가능한 체류 동선을 구축하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함
- 본 연구는 그 핵심 방향을 ① 가야문화의 현대적 재해석, ② 체류형 콘텐츠 확충, ③ 공항 기반 외국인 체류형 관광루트 구축의 세 가지 전략으로 제시하고자 함

1. 가야문화의 현대적 재해석

현행 가야문화의 이미지

- 김해시는 가야문화를 대표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가야문화유산을 활용하여 방문객 증가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는 뚜렷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가야 문화를 현대인에게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 창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가야고분군 세계유산통합관리지원단에서 발간한 연구자료인 『가야고분군 통합홍보·관광계획 수립 연구』에 따르면, 가야 역사문화로 인해 떠오르는 단어로는 삼국시대(3.78점), 철기문화(3.75점), 낙동강 유역(3.56점), 토기문화(3.55점), 가야금(3.47점), 가야연맹 정도에 불과하였음. 이는 매력적인 키워드들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야 역사문화와 연결하여 연상하지 못하였음을 나타냄
- 이어 김해시의 대성동고분군 관련 유물 연상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금동허리띠는 화려, 정교, 고급, 귀족의 순으로, 목걸이는 정교, 목걸이, 화려, 세공기술의 순으로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 외 유물에 대해서도 화려, 섬세, 기술, 공예 등의 키워드가 반복되었으며, 사후세계, 경계, 해양왕국, 국제 교류 등의 매력성 있는 키워드에 대한 연상 빈도는 낮은 수준을 보였음

'연결의 공간'으로서의 상징성 - 자연과 인간, 과거와 현재의 연결

- 가야문화는 산을 신성한 매개체로 보았고, 고분을 통해 자연(산) 속에 인간의 흔적을 남겼음. 이러한 정신은 오늘날의 '자연 회귀' 또는 '생태적 삶'의 가치와 상통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즉, 가야의 묘제는 인간이 자연의 일부로 돌아가고, 자연 속에서 지속되는 순환의 질서를 믿었던 철학적 표현으로 해석됨
- 오늘날 가야를 대표하는 김해는 이러한 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연결을 상징하는 유산'으로 재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개인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여 변화를 꿈꾸는 장소로 포지셔닝할 수 있는 전략적 근거를 제공함

'기억의 장소'로서의 가치 - 조상과 후손을 잇는 정신적 유산

- 가야의 고분은 단순히 과거의 유적을 넘어, 공동체의 정체성을 세대 간에 잇는 기억의 장치로서 기능하였음. 이러한 가치는 현대사회가 상실한 '뿌리 의식' 및 '조상에 대한 존중'과 깊이 상통함
- 따라서, 김해는 이와 같은 정신적 자산을 바탕으로 '잊혀진 연결의 기억을 복원하는 장소', 즉 '기억의 웰니스 메카'로 포지셔닝할 수 있음

'수행의 장소'로서의 확장 - 하늘과의 소통, 내면 성찰의 공간

- 고분을 산 위에 조성한 행위는 사자(死者)를 하늘에 가깝게 두려는 신앙이자, 산을 통해 천상과 교감하려는 의식적 행위로 해석됨. 오늘날의 명상 및 치유에서 행해지는 '산 정상 명상', '선(禪) 트레킹', '고분길 걷기' 등은 이러한 고대 감각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형태로 간주할 수 있음
- 따라서, 김해시의 가야고분군은 '하늘과 조상을 잇는 고대의 성소이자, 현대의 명상과 성찰의 무대'로서 재조명할 전략적 가치를 지니게 됨. 가야의 산지 고분은 죽은 자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산(자연)-하늘(초월)-공동체(인간)를 연결하는 '영적 회복의 구조물'로 바라보아야 함
- 오늘날 김해시는 이를 '기억의 치유 관광'으로 재해석함으로써, 단순한 고분 유적지를 넘어 '삶과 죽음'이 이어지는 사유의 공간'으로 발전시킬 수 있음

2. 체류형 콘텐츠(숙박·경험·야간관광) 확충

- 최근 높은 화제성을 보인 함안의 무진정 낙화놀이는 열악한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의 주목과 관심을 성공적으로 집결시킨 선례를 보여 주었음. 이는 가야문화를 재해석과 축제·이벤트를 중심으로 한 관광목적지 전환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음

전통문화의 독창성과 콘텐츠 경쟁력

- 경남 함안군의 무진정 낙화놀이는 조선시대부터 300년 넘게 이어져 온 전통 민속 불꽃놀이이자 경상남도 무형유산임. 숯가루를 이용해 만든 낙화봉(落火棒) 수천 개를 연못 위 줄에 매달아 불을 붙이면,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연못으로 꽃잎처럼 떨어지는 장관을 연출함
- 이 놀이는 조선 선조 때 함안 군수였던 한강 정구(寒岡 鄭述) 선생이 군민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근래에는 부처님오신날을 기해 군민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며 개최되다가, 최근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음

III. 경우형 도시에서 체류형 목적지로의 전환

폭발적인 인기와 안전 및 희소성 확보를 위한 '예약제' 도입

- 낙화놀이는 2023년 행사 당시 약 5만 명 이상의 내국인 관람객이 일시에 운집하여 안전 문제와 관람 불편이 심각하게 야기되었음. 이에 함안군은 2024년부터 사전 예약제를 도입하고 일일 입장객을 7,000명으로 제한하였음
- 이러한 예약제 도입은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축제 관람의 희소성과 고급스러움을 부여하여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는 역설적인 효과를 창출하였음

방문객 변화와 외래관광 유입

- 2022년까지 내국인 중심의 지역행사였으나, 2023년 이후에는 동남아 및 일본 관광객의 신규 관광 코스로 편입되었음. 일본 오사카·큐슈 지역 여행사들이 '불의 가야축제'라는 이름으로 상품을 구성했으며, 대만 타이중·가오슝 여행사들도 한국 전통 야경코스로 연계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관광데이터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한 달간 함안 방문 외국인 체류객 수는 1,500명, 카드 매출액은 전년 대비 238% 증가, 체류시간은 평균 5.8시간으로 분석되었음. 방문객 중 30~40대 여성 비중이 52%를 차지하며, 감성형 체류관광지로 인식되었음

지자체-유관기관의 협력과 '스페셜 데이'를 통한 글로벌 시장 개척

- 함안군, 경상남도, 경남관광재단, 한국관광공사(KTO)는 '강소형 잠재 관광지 사업'과 연계하여 낙화놀이를 국제 관광상품으로 육성하는 데 협력하였으며, 일반 예약제와 별도로 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위한 특별 관람일(Special Day)을 운영하여, 대만과 일본 현지 여행사를 통한 대규모 상품화를 가능하게 함. 이로써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했던 소도시 함안이 대규모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였음
-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낙화놀이 관람 외에도 낙화봉 만들기, 전통 한복 착용(갓 포함), 전통주 시음, 전통 음식 체험 등 다양한 한국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관광 만족도를 극대화하였음. 특히 넷플릭스 콘텐츠 등의 흥행으로 높아진 한국 전통 의상에 대한 관심이 방문객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축제를 통한 가야문화의 가치 홍보 전략

- 함안 무진정 낙화놀이 사례는 지역의 전통 축제가 어떻게 가야문화의 가치를 담아내고 글로벌 관광 상품으로 도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성공적인 모델이며, 함안은 현장성과 감성의 융합을 통해 역사 문화를 '살아 있는 경험'으로 재구성했음

- 반면 김해시는 가야문화의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관광의 체험성이 약하고 박물관·유적지 중심의 정적 이미지가 강함. 김해시의 관광 콘텐츠는 시설 중심, 관람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어 '살아 있는 역사'가 아닌 '보존된 유물'의 도시로 인식되고 있음

3. 공항 기반 외국인 체류형 관광루트 구축

- 공항 인접여건을 성공적으로 활용한 일본 이바라키 사례는 김해시의 체류형 관광목적지 전환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음. 특히, 도쿄 인근의 소규모 도시에서 도쿄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포지셔닝한 단계적 전략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김해국제공항의 제약 조건 및 강점

- 김해국제공항은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의 관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지리적으로는 대도시 부산에 위치하고 있어, 외국인 관광객에게 김해시보다는 부산의 관문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한 실정임. 또한, 김해시는 아직 해외 인지도가 부산이나 경주 등 유명 관광도시에 비해 낮아, 외국인이 김해시 자체를 관광목적지로 선택하는 비율이 낮다는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음

이바라키 공항의 전략적 전환: 목적지보다 루트로서의 공항

- 일본의 이바라키 공항은 도쿄 인근의 교통 여건상 불리한 지역에 위치하였으나, 도쿄로 가는 가장 저렴한 루트라는 인식 전환 전략을 통해 성공적인 성과를 달성하였음
- 이바라키현 자체를 방문목적지로 홍보하기보다, 도쿄 입국의 또 하나의 선택지로 포지셔닝하는 단계적 전략을 채택하였음. 나리타 대비 3분의 1 수준의 항공 운임, 리무진 버스 500엔 할인 등 가격 및 시간 경쟁력 확보 전략을 통해 노선 유지율을 제고하였음
- 이후 이용객이 일정 규모에 도달하자, 렌터카 1일 1,000엔 프로모션을 통해 이바라키현 내 1일 체류를 유도했음. 이는 교통 약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현지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된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음

렌터카-가야문화 연계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전략

- 이바라키 공항이 렌터카 특가(1일 1,000엔)를 통해 현내 체류를 성공적으로 유도했듯이, 김해시 역시 대중교통의 한계를 보완하고 가야문화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렌터카 활용 전략을 추진할 수 있음
-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제선 전용 '가야문화 투어 렌터카 특가' 제공을 제안함. 국제선 항공편 이용객 중 김해시 숙소에서 1박 이상 체류를 예약 및 확인한 관광객에 한하여, 렌터카를 1일 약 1만원 수준의 파격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것을 검토해야 함

IV. 맺음말

1. 시사점

- 김해시는 경남권에서 가장 높은 외지 방문자 수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숙박과 소비가 충분히 발생하지 않는 ‘통과형 도시’에 머물러 있음. 이는 단순히 관광 인프라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자체가 ‘관광목적지’로 자리매김하지 못한 구조적 결과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번 분석을 통해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체류형 목적지로의 충분한 전환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이 확인됨
- 첫째, 가야문화의 현대적 재해석 가능성
 - 김해시는 가야문화의 중심지로서, 고분군이 지닌 자연-인간-기억을 연결하는 상징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웰니스·명상·기억치유 프로그램으로 확장될 여지가 큼
 - 가야의 산지 고분은 단순한 장례 유산이 아니라, 현대적 해석을 통해 ‘영적 회복의 공간’, ‘기억의 웰니스’로 발전 가능한 문화 콘텐츠 자원임
 - 이는 체류형 관광으로의 전환을 위한 차별화된 정체성이 될 수 있음
- 둘째, 전통문화 기반의 체험·야간콘텐츠 확장 가능성
 - 함안 무진정 낙화놀이 사례는 전통문화가 현대 감성과 결합하여 지역 브랜드를 국제적 관광상품으로 도약시킨 대표적 성공모델로 평가됨
 - 김해시는 함안보다 더 풍부한 문화적 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는 축제·상설 체험·야간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체류 방문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가야문화를 감각화(感覺化)하고(공예·복식·음식·음악 등), 정적 관람 중심에서 벗어나 오감 기반 체험·야간 콘텐츠로 확장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 셋째, 김해국제공항을 활용한 외국인 관광객 체류전환 전략
 - 김해국제공항을 단순한 환승·이동 거점이 아니라 ‘입국 후 첫 체험의 도시’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함
 - 이바라키 공항 사례와 같이, 공항 연계형 렌터카 프로모션·환승 프로그램·트랜짓 투어(transit tour, 환승 대기 시간 중 이용할 수 있는 단시간 관광 프로그램) 등을 도입할 경우, 외국인 관광객의 김해시 체류 시간을 실질적으로 확장할 수 있음
- 종합하면, 김해시는 이제 ‘가야의 과거를 현대의 감성으로 잇는 실험’이 필요한 시점에 있음
- 산지 고분이 상징하듯, 김해시는 하늘과 땅, 과거와 현재, 인간과 자연을 잇는 도시로 재정의될 수 있으며, 유산의 재해석과 데이터 기반의 정책 설계가 결합될 때, 김해시는 경남의 관문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체류형 관광목적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임

2. 한계점

- 연구는 공공데이터 기반 진단이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짐
- 첫째, 기초지자체 관광통계의 구조적 제약
 - 한국관광데이터랩·국민여행조사 등은 방문 동기·방문 목적을 정밀하게 구분하기 어려움
 - 방문자 수·숙박 비중·지출액 역시 추정치에 근거하므로, 실제 관광행동의 질적 요소(체류 동기, 만족도, 재방문 의향 등)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향후에는 카드매출·통신기지국·온라인 여행사(OTA) 예약데이터 등 다차원 데이터 융합 분석체계 구축이 필요함
- 둘째, 가야문화 가치화 전략의 실증 부족
 - 가야문화의 현대적 재해석은 개념적으로 의미하나, 이를 관광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프로그램 모델 개발과 실증적 검증이 병행되어야 함
 - 특히 고분군과 같은 문화유산은 보존과 활용의 균형이 필수적이므로, 국가유산청·지자체·관광공사 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함
- 셋째, 공항 연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의 제도·재정적 한계
 - 항공사·렌터카·숙박업계와의 민관협력 구조 없이 단기 이벤트 중심의 시도만으로는 지속가능성이 담보되기 어려움
 - 향후에는 ‘김해공항-가야문화권-낙동강벨트’를 연계하는 광역 관광권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김해시의 정체성을 ‘지나치는 도시’에서 ‘머무는 도시’로 전환하는 중장기 전략 수립이 필요함

김해정책 BRIEF

발행일 2025년 11월
발행인 김재원
집필자 최나리 문화관광복지연구부 선임연구위원
권장욱 동서대학교 관광경영·컨벤션학과 교수
발행처 김해연구원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2층
연락처 (055) 344-7700
편 집 디자인 봄

- 김해연구원 집필자의 허락 없이 무단 복사, 전재하는 것을 금합니다.
- 본 간행물의 내용은 전적으로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김해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